

## 구 이와나가 시계점

이와나가 가문은 5 세기에 걸쳐 우아한 2층 석조 건물의 매장에서 시계를 판매해 왔습니다. 이 건물은 오타루의 역사적인 상점가 안 사카이마치 거리에 있습니다. 이와나가 시계점은 20 세기 초에 창업했습니다. 거리에 있는 다른 건물들 중에서도 정교한 장식과 2층의 큰 발코니가 더욱 눈길을 끄니다. 20 세기 초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가게의 전속 악단이 펼친 정기 연주의 무대로 이 발코니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악단은 인상적인 빨간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고 연주를 펼치며 손님을 모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

20 세기 초에 오타루에 지어진 많은 창고 및 점포와 마찬가지로 이와나가 시계점도 나무로 된 뼈대에 응회암을 덮어 지어졌습니다. 그러나 에도 시대(1603 년~1867 년)의 상인 가옥의 요소와 유럽 건축의 요소를 도입한 디자인이 풍부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. 상상 속의 바다 생물(샤치호코)이 각 건물 지붕에 장식되어 있습니다. 이 모티브는 일본의 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화재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으며,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. 2층에 있는 돌로 장식된 아치형 프랑스식 문과 나뭇잎을 모티브로 한 장식을 윗부분에 조화시킨 돌기둥은 1890 년대에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르네상스 리바이벌 양식의 전형입니다.

현재, 이 건물은 오타루 오르골당 사카이마치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, 이와나가 가문은 몇 블록 떨어진 미야코 거리에서 지금도 시계와 보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